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

문화산업은 따로 전략산업으로 집중해 육성

개념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고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측면도 있을 텐데도 어려운 일 잘 해주시리라 마음먹고 위원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신념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장래에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항상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대체로 문화적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향수화할 것인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두가 됐습니다. 문화를 향수하는 것 자체가 GNP, GDP 숫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몫입니다. 또 한편으로 문화영역이 산업으로 대단한 생산력을 갖고 있어 산업으로서도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모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10대 성장전략산업 회의를 마치면서 아쉬운 것이 문화산업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못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은 따로 전략산업으로 집중해 육성하겠습니다. 문화부 장관도 계시지만 문화산업에 대해 각별히 자주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해보자고는 하는데 딱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상산업지원과 관련, 지난해 영상산업제작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영상산업의 시장 규모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산업을 꼭 집중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정부의 뒷받침으로 풀어갑시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이 이런저런 연유로 불균형 발전하고 있고 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있고 지방 내 경제적 생산량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호남이 산업으로부터 소외된 면이 있었습니다. 산업발전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방의 힘으로는 부족하므로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를 할 만큼 자원이 있습니다. 광주는 오래 축적된 자원이 있고 정리되고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있고 계승되어온 재능이 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광주항쟁이 있었습니다.

비엔날레도 광주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성공했을까 생각한다. 옛날에는 관이 나서면 됐는데 지금은 관이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되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발적으로 가야합니다. 아직 지방의 자생력과 여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광주 호남에 동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정부가 자원을 동원해서 될 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산업크러스트회의에서 광주 광산업에 대해 논의했는데, 당혹스러운 것은 자원이 없는 것이 걱정인데, 돈이 없어 일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주면 다 된다고 합니까. 지난날 정부재정을 평가할 때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돈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서 오히려 일이 안됐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보면 예산 증액 요구를 하는데 예산 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썼는지 평가 받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더 많은 자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농촌 대

책도 뚜렷하면 더 책정하겠지만 제대로 쓰일까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미 자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공감대를 높여야 합니다. 공감대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 중 확실히 뒷받침하고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정책이 확실히 탄력을 받아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